

※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왕 과인 같은 자도 백성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자 가능합니다.

왕 무슨 연유로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현자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왕께서 대청마루에 앉아 계시는데, 소를 끌고 그 아래를 지나가는 자를 보고, “그 소를 지금 어디로 데려가느냐?” 물었는데, 그 사람이 “흔종(罍鐘)*에 쓰려고 합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왕께서 “소를 놓아주어라. 소가 두려워 벌벌 떨면서 죄 없이 사지(死地)로 끌려가는 것을 내 차마 볼 수가 없다.” 하시자, 그 사람이 “그러면 흔종을 폐지할까요?” 물었고, 왕께서는 “어찌 폐지할 수 있겠느냐? 소 대신에 양(羊)으로 바꾸어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정말 있었습니까?

왕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자 그런 마음이면 족히 왕다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께서 재물이 아까워서 그랬다고 하지만, 저는 왕께서 차마 볼 수 없어서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는 백성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나라가 아무리 작다 하나 내 어찌 소 한 마리가 아까워서 그랬겠습니까. 벌벌 떨면서 죄 없이 사지로 끌려가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소 대신에 양으로 바꾸라고 한 것입니다.

현자 재물이 아까워서 그랬다고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양을 가지고 큰 소와 바꾸었기에 그런 것인데, 저들이 어찌 왕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왕께서 소가 죄 없이 사지로 끌려가는 것을 측은히 여기셨다면 어째서 양은 소와 달리 생각하셨습니까?

왕 그것은 참으로 무슨 마음에서였을까요? 내가 재물이 아까워서 소 대신에 양으로 바꾸게 한 것은 아닌데. 그리고 보면 백성들이 나더러 재물을 아까워한다고 말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 흔종: 새로 종을 주조하면 소를 잡아 그 피를 종의 틈에 바르는 의식

[문제 1] “그런 마음이면 족히 왕다운 왕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현자가 말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제 2] 왕의 마지막 말 뒤에 이어질 만한 현자의 말을 유추해보시오.

※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오뒷세우스는 살아서 저승을 여행하다가 아킬레우스의 혼백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여, 아카이아 인(人)*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여, 나는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에게 물어보러 왔소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바위 많은 이타케에 닿을 수 있겠는지, 그가 혹시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해서 말ियो. 나는 아직도 아카이아 땅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내 자신의 나라를 밟아 보지도 못한 채 끊임없이 고통만 당하고 있소. 그러나 아킬레우스여, 그대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대처럼 행복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요. 그대가 아직 살아 있을 적에 우리들 아르고스 인들이 그대를 신처럼 공경했고, 지금은 그대가 여기 죽은 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통치자이기 때문이요. 그러니 아킬레우스여, 그대는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시오.”

이렇게 내가 말하자 그는 지체 없이 이런 말로 대답했소.

“죽음에 대하여 나를 위로하려 들지 마시오, 영광스런 오뒷세우스여. 나는 죽은 자들 모두를 통치하니 차라리 시골에서 머슴이 되어 농토도 없고 가산(家産)도 많지 않은 다른 사람 밑에서 품팔이를 하고 싶소. 자, 그대는 내 의젓한 아들 소식이나 전해 주시오. 그 애는 제일인자(第一人者)가 되기 위하여 전쟁터로 나갔소? 아니면 그러지 않았소? 그리고 나무랄 데 없는 내 아버지 펠레우스에 관해서도 들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요. 그분께서는 아직도 뮈르미도네스 족(族)** 사이에서 명예를 누리고 계시오? 아니면 노령(老齡)이 그분의 손발을 묶었다고 해서 헬라스와 프티아***에서 사람들이 그분을 업신여기고 있소? 나는 이제 더 이상 햇빛 아래서 그분을 보호하지 못하며, 넓은 트로이아에서 가장 용맹한 적들을 죽이고 아르고스 인들을 지켜주던 때처럼 그렇게 강력하지도 못하고. 그때의 힘을 지니고 내가 잠시나마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었으면!”

* 아카이아 인: 고대 그리스 인. 아르고스 인이라고 일컫기도 함

** 뮈르미도네스 족: 아킬레우스의 부족

*** 헬라스와 프티아: 아킬레우스 아버지의 영토

[문제 4] 오뒷세우스와 아킬레우스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하고,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설명하시오.

[문제 5] 제시문을 근거로, 아킬레우스가 이승으로 살아 돌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지 유추해보시오.

활용 모집단위	활용 문항
인문대학, 간호대학, 사범대학(수학교육과 제외)	[문제 1], [문제 2]
오전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제외), 자유전공학부	[문제 1]
인문대학, 사범대학(수학교육과 제외)	[문제 3], [문제 4]
오후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제외), 자유전공학부	[문제 3]

문제 1

- [출제의도]** 글을 읽고 전체 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정합적으로 구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 [해설]** “그런 마음”과 “왕다운 왕”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문에서 각각 찾고, 이 두 부분을 종합적이고 정합적으로 결합하여, 제시문의 전체 요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다.
- [출전]** 『맹자(孟子)』·『양혜왕(梁惠王) 상』(민족문화추진위원회 번역본)의 7번 항목 일부를 문제의 의도에 맞추어 수정한 것이다.
- [출처]** 박영목 외, “Ⅱ. 독서의 원리, 2. 독서의 수행”, <<독서와 문법Ⅰ>>, 천재교육, 98~114쪽, 134~143쪽.
이삼형 외, “Ⅱ. 독서의 이론과 실제, 2. 독서의 준비와 수행”, <<독서와 문법Ⅰ>>, (주)지학사, 118~147쪽, 182~201쪽.
이남호 외, “Ⅲ. 독서의 원리, 2. 독서의 수행”, <<독서와 문법Ⅰ>>, 비상교육, 105~125쪽, 148~159쪽.
윤여탁 외, “Ⅴ. 독서의 준비와 수행”, <<독서와 문법Ⅰ>>, (주)미래엔, 228~247쪽, 258~271쪽.

문제 2

- [출제의도]** 제시문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 [해설]**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상호 연관된 질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i) 현자가 “양은 소와 달리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설명하는 것
(ii) (i)에 대한 답변을 [문제 1]의 답변과 연결하여 “왕다운 왕”에 대해 설명하는 것
- [출전]** 『맹자(孟子)』·『양혜왕(梁惠王) 상』(민족문화추진위원회 번역본)의 7번 항목 일부를 문제의 의도에 맞추어 수정한 것이다.
- [출처]** 박영목 외, “Ⅱ. 독서의 원리, 2. 독서의 수행”, <<독서와 문법Ⅰ>>, 천재교육, 98~114쪽, 134~143쪽.
이삼형 외, “Ⅱ. 독서의 이론과 실제, 2. 독서의 준비와 수행”, <<독서와 문법Ⅰ>>, (주)지학사, 118~147쪽, 182~201쪽.
이남호 외, “Ⅲ. 독서의 원리, 2. 독서의 수행”, <<독서와 문법Ⅰ>>, 비상교육, 105~125쪽, 148~159쪽.
윤여탁 외, “Ⅴ. 독서의 준비와 수행”, <<독서와 문법Ⅰ>>, (주)미래엔, 228~247쪽, 258~271쪽.

문제 3

[출제의도] 제시문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해설] 오뒷세우스와 아킬레우스의 대화는 삶, 죽음, 행복, 명성, 권력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있다. 그 중에 죽음에 초점을 맞추어 두 인물의 가치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다.

[출전]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천병희 옮김,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4.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 표현을 수정했다.)

[출처] 박영목 외, “Ⅱ. 독서의 원리, 2. 독서의 수행”, 《〈독서와 문법Ⅰ〉》, 천재교육, 98~114쪽, 134~143쪽.
이삼형 외, “Ⅱ. 독서의 이론과 실제, 2. 독서의 준비와 수행”, 《〈독서와 문법Ⅰ〉》, (주)지학사, 118~147쪽, 182~201쪽.
이남호 외, “Ⅲ. 독서의 원리, 2. 독서의 수행”, 《〈독서와 문법Ⅰ〉》, 비상교육, 105~125쪽, 148~159쪽.
윤여탁 외, “Ⅴ. 독서의 준비와 수행”, 《〈독서와 문법Ⅰ〉》, (주)미래엔, 228~247쪽, 258~271쪽.

문제 4

[출제의도] 제시문을 근거로 상황을 유추하는 분석력과 창의력을 평가한다.

[해설] 아킬레우스는 “죽은 자들 모두를 통치하느니 차라리 시골에서 머슴이 되어 … 품팔이를 하고 싶소.”라고 하지만, 곧이여 영웅적인 삶에 대한 은근한 관심과 미련을 표명한다. 학생들이 이 대목의 함의를 정확히 읽었는지 묻는 문제다.

[출전]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천병희 옮김,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4.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 표현을 수정했다.)

[출처] 박영목 외, “Ⅱ. 독서의 원리, 2. 독서의 수행”, 《〈독서와 문법Ⅰ〉》, 천재교육, 98~114쪽, 134~143쪽.
이삼형 외, “Ⅱ. 독서의 이론과 실제, 2. 독서의 준비와 수행”, 《〈독서와 문법Ⅰ〉》, (주)지학사, 118~147쪽, 182~201쪽.
이남호 외, “Ⅲ. 독서의 원리, 2. 독서의 수행”, 《〈독서와 문법Ⅰ〉》, 비상교육, 105~125쪽, 148~159쪽.
윤여탁 외, “Ⅴ. 독서의 준비와 수행”, 《〈독서와 문법Ⅰ〉》, (주)미래엔, 228~247쪽, 258~271쪽.